CHOICE

목차

❁ 헬로우뮤지움 소개 04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 관장

❖ 전시 소개, 작품 설명 14
고윤정 <다름아름>협력 큐레이터
예지연 <다름아름>큐레이터

❶ 전시 연계 세미나 64
이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생물, 문화다양성 사전 세미나

❷ 전시 연계 프로그램 97
아트동동 / 작가 워크숍 / 식물 표본 만들기
뮤지움 키친 / 쉬운 글쓰기

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110
안범철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❹ 학교 안 다양성 이야기 118
박에스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❺ 전시 참여자 인터뷰 128
이봉욱, 흑표범, 김가연, Cristina FernandezLee, 팜쭉린

헬로우뮤지움 소개

헬로우뮤지움은 '함께 자라는' 미술관으로, 2007년 개관하여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예술 전시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미술관으로 국내 최초의 어린이미술관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세상을 꿈꾸는 헬로우뮤지움은 2019년 성동구에서 에코미술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린이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어린이와 연결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까지 풍요롭게 하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은 현대미술을 통해 어린이와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공익을 위한 미술관입니다.

인사말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 관장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에코뮤지움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 모두를 환대하는 미술관입니다. 2024년 기획전<다름아름>으로 다른 것이 모여서 아름답다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사 박물관 표본과 7명의 작가(구민자, 김유정, 이봉욱, 정연두, 조영주, 하루.K, 흑표범)의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생물다양성에서 배우는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3개의 협력 기관,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성동구 가족센터, 세계시민포럼과 힘을 모아 만든 전시입니다.

미술관은 이제 예술 작품들의 보물창고가 아니라, 어린이의 사회적 감각과 인권감수성을 키워주는 배움의 장소로 미래세대가 폭넓게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술관이 동시대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협력 기관, 협력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술관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환대받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HELL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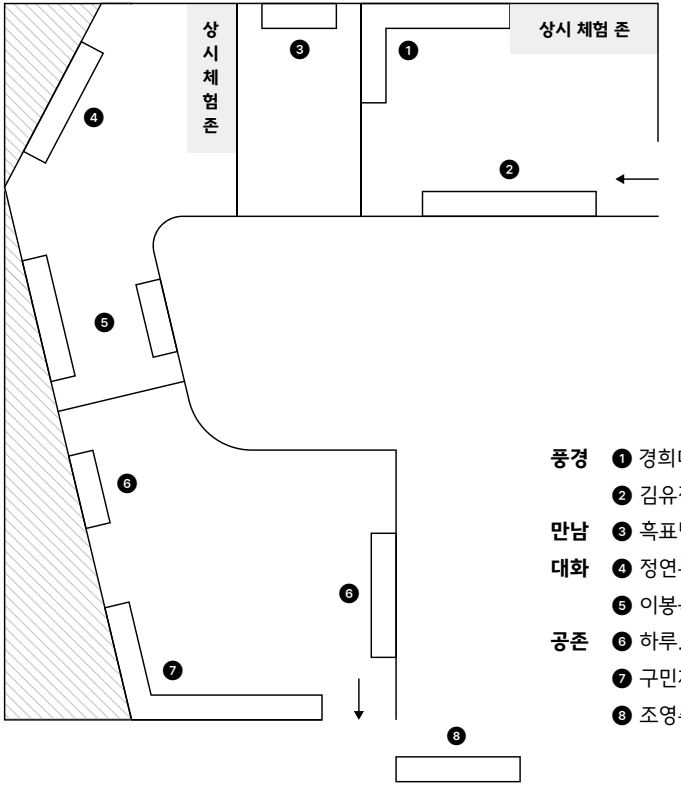
전시 소개

<다름아름> 협력 큐레이터 **고윤정**

<다름아름>은 헬로우뮤지움에서 꾸준히 추구하여 왔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전시이다. 다양성은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로 다문화 사회, 장애와 비장애, 생물다양성의 여러 가지 맥락을 포괄한다. 가족, 교육 등 여러 가지 견고한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시스템은 다양한 연결고리, 개별적인 주체자들의 상황, 맥락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가장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다양성은 유동적으로 확장된다. 문화 체계 역시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타자들과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름아름>전시에서는 식물의 이주, 북한을 이탈한 주민, 비인간과의 공생, 어려움을 넘어선 협업, 타지에 갔을 때의 낯선 경험 등을 통해 다양성의 시각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시와 함께 진행된 연계 세미나,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통해 헬로우뮤지움은 다양성을 담론화하는 NGO 단체, 박물관, 연구자, 여러 기관을 연결하였다. <다름아름>을 통해 각 기관과 예술가들이 함께 '친밀하고 소중한' 타자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관객들에게도 이러한 지점을 제안하는 전시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전시 구성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잡초와 귀화식물 Weed&Naturalized Plant〉
1차 표본 제작: 1978년 / 2차 표본 제작 및 수리: 2023년
(씀바귀 표본 외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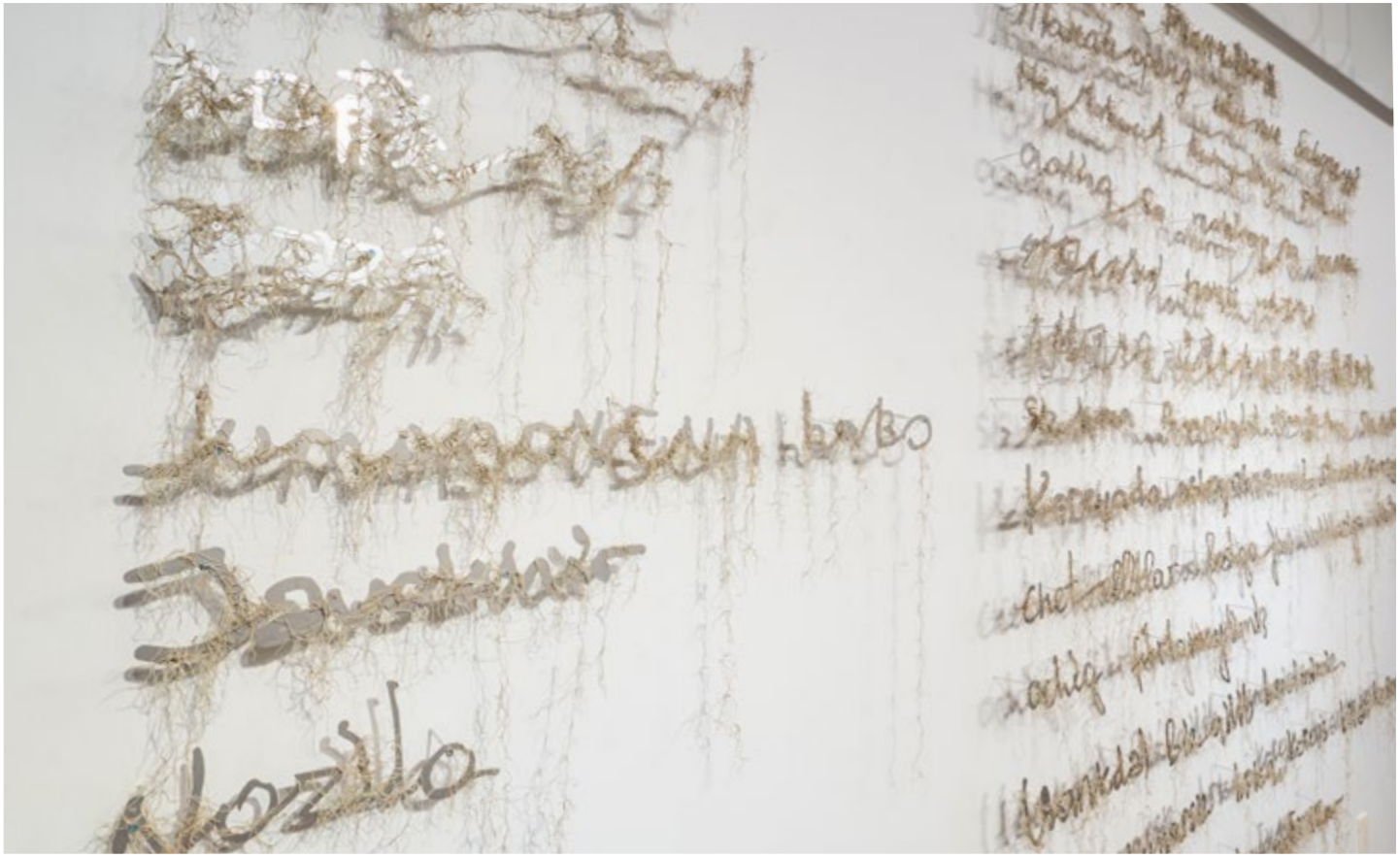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잡초와 그사이에 살고 있는 귀화식물이다. 쉽게 지나치는 식물 사이에도 많은 이동과 교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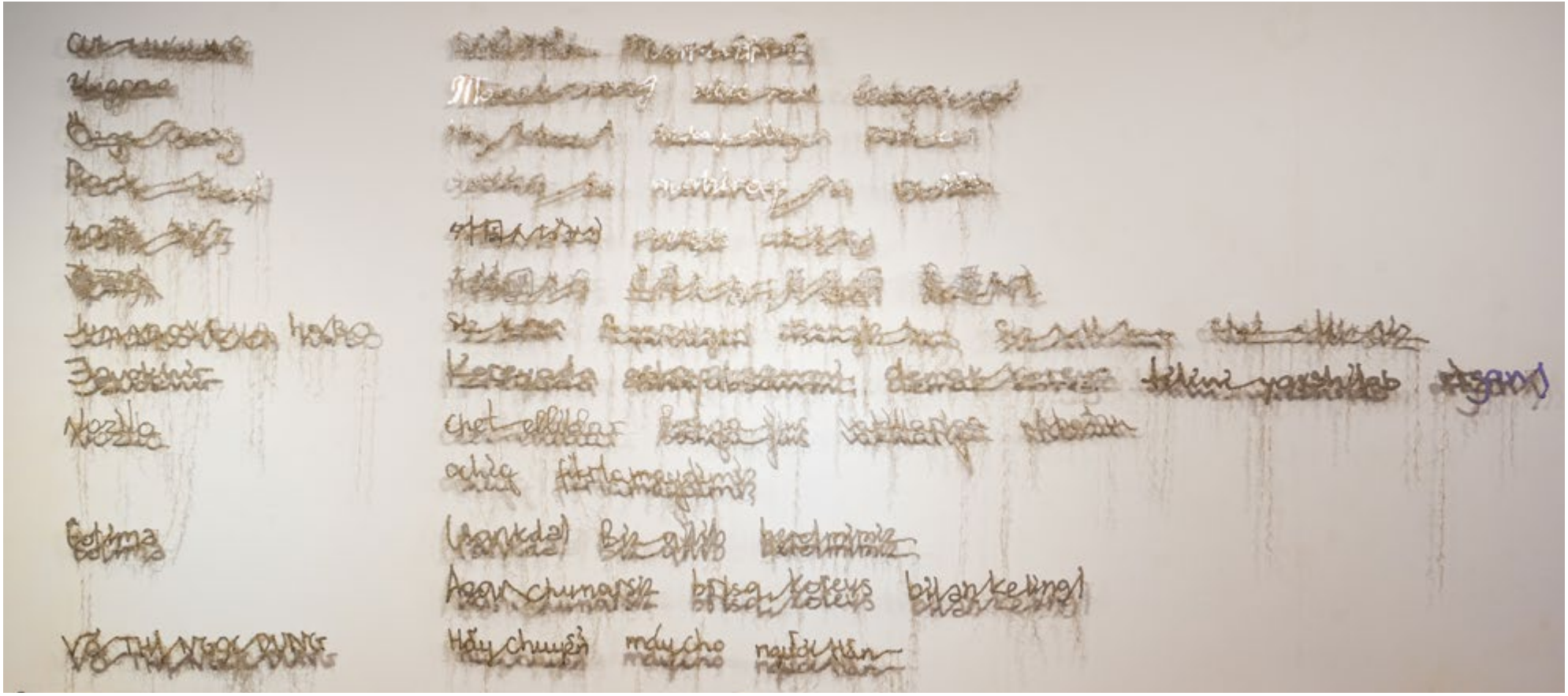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돌돔의 이동 Movement of Oplegnathus Fasciatus〉
1차 표본 제작: 1978년 / 2차 표본 제작 및 수리: 2023년
(돌돔 표본 19점)

돌돔은 아시아, 태평양의 바다에 살며 무리 지어 이동하기도 한다. 각 지역에서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 종(species)이다.

김유정
〈구부러진 소리 Warped Sound〉
2023, 스테인리스 레이저커팅에 틸란드시아 식물, 가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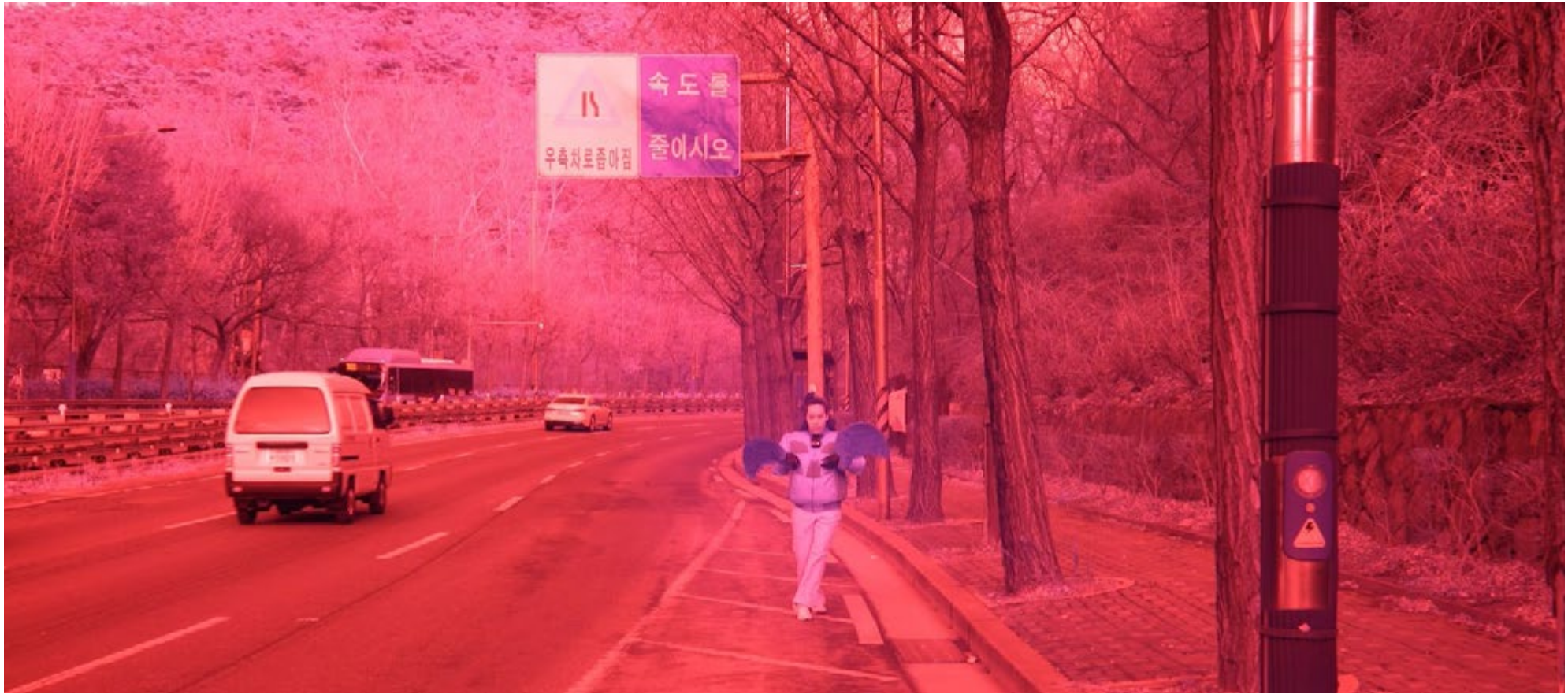
〈구부러진 소리〉는 고향을 떠나온 이주 여성들이 겪은 상처의 말을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새긴 레이저커팅 위 틸란드시아 식물을 감싼 설치 작품이다. 틸란드시아 식물은 쉽게 옮길 수 있고, 자생하며, 밟히고 망가져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날카롭게 각인된 상처의 말들을 틸란드시아 식물로 감싸며 낯선 환경에서의 생존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활용된 자연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서식지에서 생존하며 공생과 상생을 넘어 유대하는 대상으로 치유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담는다.





흑표범(feat.홍이현숙)
〈비행공포 Fear of Flying〉
2023, 단채널 퍼포먼스 비디오, 10분 47초

〈비행공포〉는 두 세대의 여성 작가, 흑표범과 홍이현숙이 새와 가오리를 흉내 내며 각자의 출발지에서 서울의 길거리를 이동하다 터널 가장자리에서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비디오이다. 비인간 동물인 새와 가오리의 몸짓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주변의 감각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퍼포먼스는 집이 없는 인간/비인간을 위한 시적 행위로, 두 여성 작가가 여성과 자연, 홈리스, 성소수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다름을 인식하며. 우리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집이 되어줄 수 있을까’로 바꿔 생각해 보는 가능성을 상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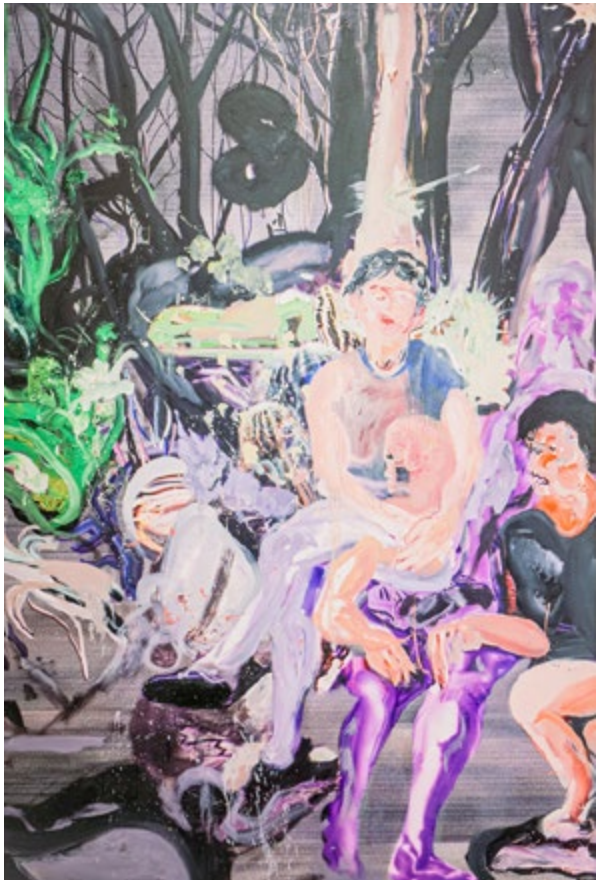

우측차로좁아짐
속도를
줄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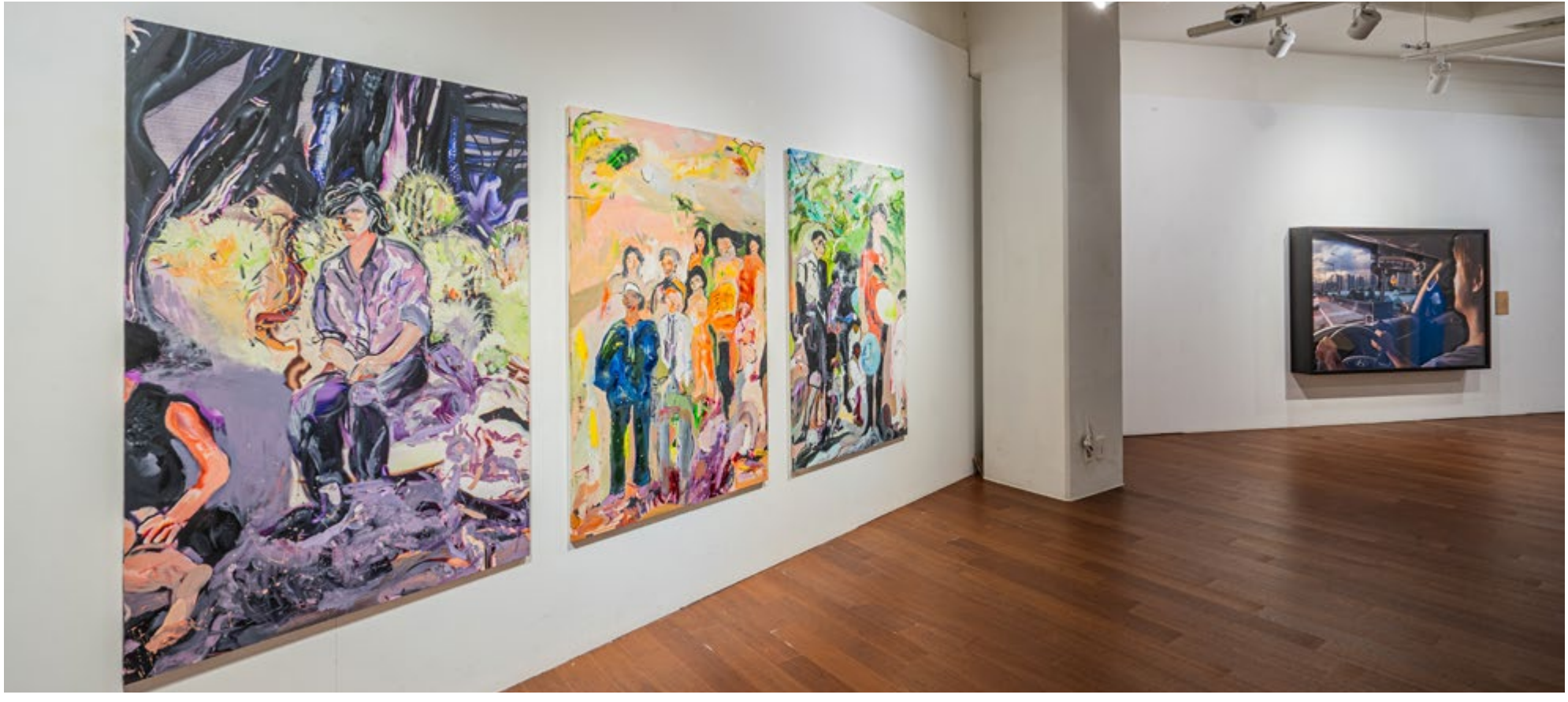
정연두
〈여기와 저기 사이-장철진〉
2016, Multi-layered photo-collage with sound
190x120x20cm

〈여기와 저기 사이〉는 이민자들이 타지에 살며 간직하는 과거의 기억과 삶의 기대를 작가 특유의 연출로 작품화한 시리즈작이다. 이주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온 정연두 작가는 유럽에서 이민자들의 만남을 가지며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이후 그들의 이야기를 녹취하고 상상력을 불어 넣은 '여기와 저기 사이' 연작을 발표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여기와 자기가 떠나온 고향 저기 사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면을 다층적인 구조로 포토콜라주 구성한 화면과 함께 장철진의 인터뷰 사운드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봉욱
〈낯선 고향엔 가족과 가시많은 식물이 있었다(귀향)〉
〈연변 안도현 기관유치원 교사들〉
〈유치원 운동대회에서 이모와 아이들과 부모와 선생님들〉
2024, 캔버스에 유화, 3점 교차 설치, 148x100cmx5

이봉욱 작가는 연변에서 무용을 전공하였고, 한국에 정착하여서도 무용 창작을 공부하였다. 무용과 회화 작업을 겸하고 있는 작가는 어릴 적부터 이주 민족으로 겪었던 중국에서의 기억, 민족 간의 어중간한 경계, 모호한 정체성을 주제로 삼아 즉흥적인 화법으로 표현한다. 연변 출신 이주민으로서 말과 행동, 사실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를 무한한 가능성과 정의할 수 없는 자유로움으로 경계를 규정짓지 않은 장면을 연출한다. 실제 본인이 간직하고 있는 유치원 운동대회에서 찍은 사진이나 연변의 기관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 사진을 모티브로 정체성의 경계에서 융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가 특유의 표현법으로 담고자 하였다.





하루.K
〈다향만리(茶香萬里)-추억은 차오르고〉
2023, 한지에 수묵채색, 131x200cm

하루.K는 현대인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속에서 동양의 산수 정신과 현대인의 유희 대상인 음식을 초현실적으로 결합하여 산수 유람의 흥취와 유희를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녹아낸다. 〈다향만리〉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산수 유람의 즐거움과 흥취를 중심으로 여가를 즐기는 현대인들의 일상의 삶을 연결한다. 〈맛있는 산수〉(마라탕, 해물 어묵탕)는 음식과 연관된 풍경(마라탕은 중국의 사천지역,어묵탕은 바다풍경)이 그려진 현대적인 산수화로 관람객에게 미각적 즐거움으로 시작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루.K 〈맛있는 산수 : 마라탕〉 2024, 한지에 수묵채색, 120x95cm

하루.K 〈맛있는 산수 : 해물 어묵탕〉 2024, 한지에 수묵채색, 61x41cm

구민자
〈대서양 태평양 상사 Atlantic-Pacific Co.〉
2011-2012, 복합매체, 가변 설치

〈대서양 태평양 상사〉는 구민자 작가가 2011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아틀랜틱 애비뉴'라는 긴 도로와 그 근처에 나란히 위치한 '퍼시픽 스트리트'를 접하며 바다의 이름이 어떻게 거리 이름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16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의 탐험과 무역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이 두 거리를 탐험하듯 걸으며 그곳에서 독특하고 신기한 물건들을 수집한 후 그 물건들을 판매하는 무역회사와 가게를 열어 전시하였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상황을 아카이브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작업을 거닐며 관객은 잠시 다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Beach Cliff
SARDINES

NEEM ALOE VERA
NEEM ALOE VERA
NEEM ALOE VERA
Carbolic

Atlantic -
Pacific co.

Atlantic -
Pacific co.

Atlantic-
Pacific co.
SULTAN
NEEM ALOE VERA

조영주
〈꼼 빠니 Com Pani〉
2021, 단채널 비디오, 18분 6초

〈꼼 빠니〉 영상 속 4명의 퍼포머는 각기 다른 한 가지의 신체적 제약을 설정한 후, 스펀지 소재의 조형물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도착지까지 가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 퍼포머들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부대끼며 서로를 돕는다. 이 상생과 경쟁의 여정은 관객의 시선을 동반한다. 작품은 행위 하는 자로서 퍼포머와 그 행위를 바라보는 자로서의 관객에게 온전히 분리될 수 없는 대상 간의 순환적 관계를 질문하며 공생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달라도 친구

전시 연계 세미나 :
이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현재 다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주'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짙어지기 때문이다. '이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과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름아름>전시의 연계 세미나인 '이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에서 각 분야에서 다양성과 이주와 관련한 연구와 업무를 맡고 있는 패널들이 모여 '이주'와 관련한 인식과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을 함께 나누어본다.

2024.5.23. 15:00 헬로우뮤지움

패널
박에스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소윤미 동대문구 가족센터 과장
안범철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연주 성동구 가족센터 센터장
이영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겸임교수

모더레이터
고윤정 협력 큐레이터

고윤정 Q. 안녕하세요, '이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전시 연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주와 재난 문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제 바라카 도서관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예술가들이 자기 삶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와 재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멕시코로 이주한 한 인에 대한 전시가 있었고, 또 다른 작가는 예멘 난민 사태를 다룬 작품을 선보였죠. 이렇게 현대미술로 화두들 던져보았고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각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이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이주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에스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장학사 박에스더입니다. 서울시 내 거의 모든 학교, 즉 97%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단 하나뿐이며,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

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주'라는 주제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2008년 사단법인 호이라는 교육 NGO 단체를 창립하며 아프리카를 오가며 얻은 경험 덕분입니다. 당시 케냐의 원주민 부족과 교류하며 저는 이주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교육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지방 출신으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의 제 경험은, 지금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닮아있습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적응해야 했던 저의 경험을 통해, 이주민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케냐에서 경험을 통해서도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어우러지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이주민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직업 교육이나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범철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의 안범철입니다. 저는 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생물 다양성의 한 측면인 이주와 경쟁에 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식물의 생존과 번식은 씨앗의 분산에 달려 있습니다. 식물은 씨앗을 멀리 보내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어미 나무 아래에 머무르면 물, 양분, 햇빛이 부족해져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보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의 분산과 이동은 생물 다양성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물 중 자생종과 고유종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생종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생물을 의미하며, 고유종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생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은 약 2,700종 정도로, 전체 식물종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종들은 모두 외래종으로, 이들은 신생대 4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들입니다. 이러한 외래종은 우리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귀화식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들로, 안정된 숲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 먼저 정착합니다. 안정된 숲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식물들이 많아 새로운 식물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화식물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귀화식물과 달리,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식물로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유입됩니다. 예를 들어, 황소개구리는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생태계가 이 외래종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황소개구리도 생태계 내에서 다른 생물들에게 먹히며 자연스럽게 적응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의 다양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이주할 수 있는 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12시간이면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이 정작 이주와 이동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의 이동과 이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앞서 말씀드린 생물의 이주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이주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연주 가족센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 자치구마다 마련된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두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정책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되었고, 이제는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선주민과 다문

화 가족이 구별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합니다. 전형적인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여전히 많지만,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결혼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화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결혼 이주뿐만 아니라 부모를 따라온 중도 입국 청소년, 탈북민, 나이 들어 자녀를 따라 이주한 외국인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위해 가족센터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취업,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소통과 교감을 증진하기 위한 상담과 문화생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이주민뿐

만 아니라 기존 한국 주민들도 포함한 다양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윤미 가족센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 정부와 지자체의 가족정책을 반영한 가족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비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문화가족을 언어·경제 취약 등 소외계층으로 여겨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수였다면 요즘은 공존과 함께 이주민-선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정착단계를 거친 다음 단계로 자녀들의 성장 이후 이주민 자신도 사회·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동대문구 가족센터에는 몽골, 중국, 일본, 베

트남 출신의 통번역 지원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의 소통을 도우며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을 특정한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은 저개발국 출신의 이주 여성과 혼기를 놓친 남성이 혼인한 가족 형태일 거라 한정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우리 센터는 매년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지

제 연구는 주로 20세기 동아시아와 아시아계 미국인 미술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주는 매우 흔하고 불가피한 현상이며, 다양한 예술가들의 이주 경험을 통해 그 복잡성과 다층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화가 주원지는 1920년 초 미국으로 이주한 후, 아시아 여성에게 불리한 미국의 이민법 때문에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됩니다. 이 개인적 상실감은 그의 작품 내용과 형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고려인이었던 변월룡은 연해주에서 태어나 구소련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예술가로 성공하지만, 한국전쟁 후 북한의 평양미술학교에 파견되어 일하면서 귀화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고, 북한 미술 발달에 기여하고자 했던 바람을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간의 이동으로 달라진 지위와 환경이 예술가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화가 이성자도 일본 유학 후 한국전쟁 중 도불하여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되고, 현재 최초의 여성 추상화가로 저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자는 한국에서 겪었던 불운한 개인사와 민족적 비극을 프랑스에서 미술창작 활동을 통해 승화시킵니다.

이처럼, 예술가들의 이주 경험은 단순한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이동이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이 얽힌 다층적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사적으로 이주는 중심과 주변부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며, 개개인이 국제 무대에서 예술 활동의 기회를 추구하는 다양한 경로와 그에 따른 다문화적 배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고윤정 Q. “이주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에서인데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대상화되거나 특정 이미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박에스더 교육 현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케이팝과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 학생들이 많아졌고, 축구 선수 자녀와 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만나는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밀집된 지역에서는 차별을 덜 느끼는 반면, 소수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다문화 학생이 학교 전체의 인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접근 방식을 다문화 학생의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인식 변화와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윤정 Q.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새로운 정책들이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연주 통합센터로의 변화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들의 취약점 지원이 중요하지만,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과는 다소 상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는 이주민들이 많은 연령층의 학령기 아이들을 포함해,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주민과의 문화적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상호작용, 취업 등에서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적응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며 통합센

터로 나아가려면,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고 느낍니다. 다문화 가족과 선주민 가족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실적 평가에서 이들을 구별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큽니다. 용어에서 오는 차별성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접근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정 Q.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지표화와,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범철 생물 다양성 지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물 종의 분포와 적응 등을 측정합니다. 이 지표는 매년 발표되며 각 국가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생물 다양성과 산업, 인간 문화의 이주는 다를 수 있어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이주와 생태계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로서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 개발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적자생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한 종에 속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이동과 혼합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인간 중심적인 문제와 이동 관리, 그리고 인간성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윤정 Q.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출퇴근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다른 국가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동대문 가족센터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지표로 항목화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윤미 현재 동대문구 가족센터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정화된 어른들의 인식 개선

은 어렵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보다 효과적입니다. 아동 유관 기관에 찾아가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이주 배경 강사가 직접 모국어와 이주 배경 문화를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우리 사회에 다양한 친구·이웃이 함께하고 있음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동대문구 가족센터는 다문화합창단 '행복 메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음악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사를 통해 발음교정이나 한국어를 습득합니다. 다문화합창단 행복 메아리는 16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적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연구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관장

Q. 이번 다름아름 전시 연구 과정에서 학교 내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한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재에서 성숙하지 않은 표현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술관과 같은 문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미술관에서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같은 접근법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에스더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문화 교육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교육 요소가 많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지원이 부족하고, 교재에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같은 곳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인식 부족이 문제입니다. 더 많은 협력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문화 기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다문화 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HELLO
MUSEUM
MAPS
박물관
미술관
주간

전시 연계 사전 세미나 : 생물, 문화다양성

생물다양성 사전 세미나 : 2024.4.19. 비대면 미팅
문화다양성 사전 인터뷰 : 2024.5.2. 바라카도서관

패널
안범철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노준성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공학과 교수
김기학 바라카 도서관 대표

모더레이터
고윤정 협력 큐레이터

참여자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관장
박은주 세계시민포럼 팀장
예지연 헬로우뮤지움 학예사

● 생물다양성 사전 세미나

안범철

저는 이번 전시에서 생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주제에 접목해서 귀화 식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식물들인데 과연 안 좋게만 볼 것인지, 생태계 교란종 개념으로만 볼 것인지, 혹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생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귀화식물이 매우 많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이지만 사전 귀화식물로 오래전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들어온 생물들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작물이 되었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광해군 때 들어왔고, 원산지는 남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들어와서 자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배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물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단풍잎 돼지풀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생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귀화식물 중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어디서부터 귀화식물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트리아도 문제가 되었고, 황소개구리, 예전에는 베스 블루길도 문제가 되었었죠. 인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잇습니다. 중국 꽃매미의 경우에도 인간에 의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노준성 저는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공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생태계 탄소저장고로 불리우는 블루카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주 얘기를 먼저 꺼내셨는데, 이주라고 하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특성상 생물들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물이 인간이 관여하지 않았을 태고의 모습, 자연현상,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살만하다 싶으면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점차 퍼져 나가는 것을 이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산호는 아주 작은 알을 산란하고, 알과 유생은 해류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본인이 살던 곳보다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특정 생물들의 이주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갈대와 비슷한 '갯끈풀'이라는 외래 염생식물이 문제가 되면서 이슈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제거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생물이 본디 살던 곳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최근 보고되는 많은 사례들은 인간에게 책임이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갯끈풀이 우리나라 갯벌에서 발견되어 이슈가 된 시기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위도대에서 발견되어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범철 귀화에 있어 객관적인 잣대는 어렵습니다. 인위적인지, 자생적인지가 기준이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가 인간 중심의 개념이라는 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씨앗을 퍼뜨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또 다른 환경에서 자손을 살게 하는 것은 중요한 본성 중 하나입니다.

노준성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생물이 다채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태계를 흔히,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요. 최근 다양한 연구들에서 높은 생물다양성이 양질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편익, 쉽게 말하자면, 돈으로 혹은 다른 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잡이 어선이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 와서 시장에 팔면, 배를 가동하는 기름값이나 인건비들을 제외한 이윤이 남을 텐데 그 이윤을 생태계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태계 혹은 생물의 가치는 때로는 인간의 개발 활동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흰발농게'라는 해양 보호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가끔씩 발견되는 법으로 보호받는 귀중한 몸이지요. 이와 같은 보호 생물이 특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계획한 공사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발농게' 관련한 이주 프로젝트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특정 생물들이 선호하는 이주 조건을 찾아내서 옮겨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안범철 저희는 표본을 채집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체감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종 분포를 확실하게 표본으로 같이

연결하는 부분은 미약한 것 같아요. 식물에 50~60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동물의 경우도 없던 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분명히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도 절대적으로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많이 유입되었고요.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유전자라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국적인 식물 역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유종은 2,300종 정도입니다. 이 고유종은 한국이 처음 나온 자생지인 경우입니다. '구상나무'는 고유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는 '고라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많다 보니 농작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준성 한국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영토 개념이 생물에게 통용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후대나 생물들이 발견되는 바운더리 내에서 정해진 것인데, 우리나라 특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이 한국적이라고 구분하

는 것은, 때로는 인간 중심의 구분일 수 있습니다. 생물이 아니라 공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갯벌이 두드러지는 지형입니다. 이러한 갯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무형 문화들, 가령 생물을 잡기 위해 매일 같이 반복되는 해녀나 어촌 사람들의 이동, 생물을 잡으며 부르는 구성진 노랫가락, 또는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잡기 위해 사용된 전통적인 도구도 해양생물 덕분에 만들어진 한국적 문화 행태가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생물과 '국가적'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예술가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만나게 되면 무척 의미 있는 결과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멕시코 칸쿤의 경우 언더워터 뮤지움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다양한 주제의 조각상들, 때로는 사람이거나 가구이거나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테마로 표현된 작품들이 얕은 바닷속에 끝도 없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접근가능한 물속 세상입니다. 과거 허리케인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 산호초를 멕시코 정부에서는 인공적인 어초를 투입해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 제이슨 테일러라는 조각가는 조금 더 발칙한 상상을 합니다. 물속에 다양한 테마의 조각공원을 만들고 이러한 조각 공원을 기능적으로 조금 손을 본다면 물고기나 다양한 해양생물이 활용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칸쿤 수중박물관은 이곳을 꿈꾸는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가장 칸쿤적이라는 공간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범철 다양성의 기본은 안정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서 생존 경쟁력에서 안정성을 가지려면 수많은 경쟁이 있고, 살아남은 것들이 조금 더 안정화된 환경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노준성 동의합니다. 생태계 스스로의 경쟁과 적응 과정을 통해 잘 완성된 안정성이 한번 깨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컨대 간척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새만금 간척지가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고요, 전 지구적인 안정성이 깨져버린 결과로 현재의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는 지구촌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범철 박물관과 관련하여서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자연과 민속을 함께 표현해 주고 있는 곳이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연사는 자연사대로 민속은 민속대로 풀고 있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제주도 민속이 자연조건에 기인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탐구하면 좋겠어요.

노준성 자연조건에 기인해서 나온 내용 중 하나 제안해 드려보면, 해양 마을의 음식문화 그중에서도 젓갈이 주목해 볼 만한 민속음식 같아요.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을 활용하는 젓갈을 담근다거나, 혹은 특정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젓갈이나 다른 음식을 발효 또는 건조를 통해 저장한다거나 하는 전통 풍습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성을 찾을 수 있겠지요.

박은주 지금 현재에서 한국적인 것을 질문한다는 건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다시 원론적인 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전시를 계기로 정말 이 사고의 확장이 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헬로우뮤지움에서 이런 주제를 다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이 시점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더 깊이 있는 발전된 전시로 또 내지는 이런 세미나 형식으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 생물다양성 비대면 사전 세미나

● 문화다양성 사전 인터뷰

고윤정 예술가에게는 유학, 레지던시 등으로 계속해서 이주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 그런지 유독 이방인으로서의 이야기가 많고, '이주'를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였던 김아영 작가는 예민의 난민 문제를 모티브로 하여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다름아름> 전시에 정연두 작가님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다루시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가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장면들을 광고하는 간판이 있기도 해서 예전과 다르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실이 무척 와 닿습니다. 바라카도서관은 이주, 다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요?

김기학 저희는 월세 20만 원짜리 공부방, 옥탑방에서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예맨 가족이 올라왔는데, 딸이 둘이고 셋째 임신이 3개월이 되어 있는 가족이었어요. 당장에 기거할 데가 없어 주변 모텔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옥탑방에 시작하게 되었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정착을 돕고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고, 아빠도 정착 후 점차 일을 하게 되면서 숨통이 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어요. 2018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가족들도 부천에 이주하여 정착하였지요. 그들이 이태원으로 온 이유는 여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 이태원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입학 후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특히 이곳은 미술,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이들에게 유효했는데, 사회의 프리즘이 되어서 직접 난민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 사회에 어필하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빠들 모임, 엄마들 모임 등 여러 모임이 있고,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학교와 부모 간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토로해보아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실제적으로 학업 문제들, 기초 학력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울 때마다 예술과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하여, 말을 많이 안 해

도 잘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지식이 완전히 성적하기 전까지 어려운데, 사람의 감성을 예술로 터치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는 이렇게 학교, 정부, 교육기관 등의 역할을 연결하고, 순수하게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답답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 안에서는 절차들이 있다 보니 과정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멘 사람들이 아닌 예멘 '난민'으로 들어왔던 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왜곡과 편견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헬로우뮤지움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나아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

다름아름 아트동동
↘ 다름아름 작가 워크숍
식물 표본 만들기 ↙
↘ 뮤지움 키친
쉬운 글쓰기 ↙

<다름아름> 아트동동

아트동동은 미술관 에듀케이터와 함께하는 헬로우뮤지움의 전시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작품감상, 예술 놀이, 창작활동 3가지 활동으로 전시를 더욱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 <다름아름> 아트동동 감상 활동

1. 문화다양성 그림책 감상 2. 전시 감상 & 놀이 활동
3. 표현활동 - 동양의 열두띠 이야기를 감상하고 나의 십이지신 가면 만들기 구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다름아름> 아트동동 표현 활동

<다름아름> 작가 워크숍

<다름아름> 전시 참여 작가 흑표범, 김유정 작가가 진행한 전시 연계 작가 워크숍입니다. 작가가 직접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예술 활동은 작품의 깊은 이해로 연결됩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심층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 결과물을 창작해 봅니다.

▶ <다름아름> 흑표범 작가 워크숍

▶ <다름아름> 김유정 작가 워크숍

식물 표본 만들기

자연사 박물관 학예사와 미술관 주변 녹지를 산책하며 우리나라에 정착한 귀화식물을 탐색, 채집하여 표본 제작 키트를 활용해 식물 압화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쳐 지나갔던 식물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생물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교사 대상 식물 표본 만들기(안범철 학예연구사 협력)

뮤지움 키친

현대미술에서 '키친'은 자유롭게 의견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이자, 여러 문화의 경험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헬로우뮤지움의 감수성과 현대미술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뮤지움 키친이 가족 미술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토크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족 대상 뮤지움 키친

▶ 성인 대상 뮤지움 키친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노준성 교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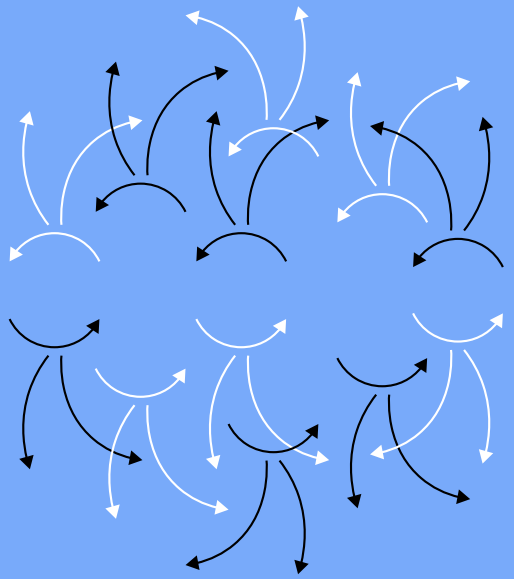
쉬운 글쓰기

다양한 관객들이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전시 설명글을 재구성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전시 설명글을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어보며 전시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족 대상 쉬운 글쓰기 (조우리 작가 협력)

▶ 성인 대상 쉬운 글쓰기 (조우리 작가 협력)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안범철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우리는 생물다양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단순한 개념으로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어떤 이는 주변에 모기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기한테 물리면 가렵고,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모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뎅기열,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등과 같이 모기가 옮기는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라도 모기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로 모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 모기의 애벌레는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물속에서 살아가며, 물고기나 수서 곤충의 먹잇감이 된다. 장구벌레가 사라지면서 물속의 생태계에는 큰 먹잇감이 사라지

고, 그에 따라 장구벌레를 먹고 사는 물고기의 수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새(조류)나 작은 동물, 파충류 또한 연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장구벌레가 아니라 성충이 된 모기도 마찬가지다. 모기를 먹는 양서류, 조류는 그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태계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모기이지만 그 수가 감소하거나 사라진다면 연쇄작용에 의하여 다른 생물들도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기가 줄어들어 먹을 것이 없다면 파리나 다른 작은 생물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밥이 없으면 빵을 먹고, 그것도 없으면 다른 먹을 무언가를 찾듯이 생물들도 모기가 없어진다면 다른 먹잇감을 찾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먹잇감만을 먹지 않고 다른 먹잇감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포식을 하는 생물의 생존성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먹이 그물(food web)이라고 한다. 또한 주로 먹던 먹잇감이 사라진다면 다른 먹잇감을 먹기 위하여 사냥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먹잇감이 충분한 개체수가 될 때까지 그 포식자의 개체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향으로 개체수의 진동이 생기게 된다.

개체수의 진동

포식자는 먹잇감이 충분히 있으면 그 개체수가 증가한다.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먹잇감을 과도하게 소비하여 먹잇감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포식자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다. 다시 포식자의 수가 충분히 적어지면, 먹잇감의 수는 증식에 의해 다시 회복,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에는 개체수의 진동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개체수의 진동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다양한 먹이그물에 의하여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모기가 사라진다면..." 우리 주변의 생태계 평형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개체수의 진동은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되며, 모기가 없어짐으로 모기를 먹잇감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1차 포식자)도 개체수가 감소하고, 그 생물(1차 포식자)을 먹잇감으로 하는 또 다른 포식자(2차 포식자) 또한 개체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면 모기 이외의 또 다른 해충이 극성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농작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사람의 먹거리는 한시적이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어떤 변화에(모기의 수가 감소 된다거나 하는) 영향을 최소한 줄이고자 한다. 복잡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는 기초적인 생물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고자 한다. 생물다양성이 높을수록 포식자의 생존성이 높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다양한 생물을 모두 우리나라에 옮겨 놓는다면 생물다양성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생물의 생존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결과는 모두 예상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뉴트리아를 옮겨 온 적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들여왔다가 실패하고, 불가리아에서 또다시 들여와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뉴트리아는 서식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들여왔을 때는 도입된 생물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그들이 살기에도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그 후 기후가 비슷한 불가리아에서 들여온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게 되었고, 뉴트리아에 의한 생태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뉴트리아는 물가 근처에서 살면서 식물의 잎과 뿌리, 열매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생태계의 진동이

시작된 것이다. 식물이 줄어들고 뉴트리아의 개체수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뉴트리아의 수가 줄어들기 전에 식물을 먹던 다른 생물이 먼저 감소하였고, 수생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번식을 하던 물고기의 수도 줄어들었다. 먹이경쟁에서 수와 덩치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뉴트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뉴트리아를 먹잇감으로 하는 포식자가 없다는 것이다. 처음 본 커다란 쥐를 먹잇감으로 삼을 포식자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뉴트리아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분포 지역을 넓혀 가며 우리나라의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예는 황소개구리가 있다. 황소개구리도 우리나라에 살지 않던 생물이다. 사람들이 식용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는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구리의 이미지가 아닌 물고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 자료가 나오면서 괴물 취급을 받았던 생물이다. 한때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포획하였던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황소개구리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 잊혀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생태계 안에서 황소개구리는 더 이상 특이한 생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존재하던 백로와 같은 조류, 수달 같은 포유류가 황소개구리를 포식하기 시작하였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개체수가 생태계의 진동 안에 포함되며, 우리 생태

계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적응이 될 수 있는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적응이 불가능한 생물은 지역사멸 또는 생태계교란종이 되어 기존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변화와 적응, 시간의 반복을 통하여 생태계는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같이 비교하기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지만 생물의 다양성은 적응(adaptation), 진화(evolution)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다양성도 인류 문화의 적응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도 획일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상호 교류하며 적응하게 되고, 이는 생물의 진화에 영향을 주듯이 문화의 창의성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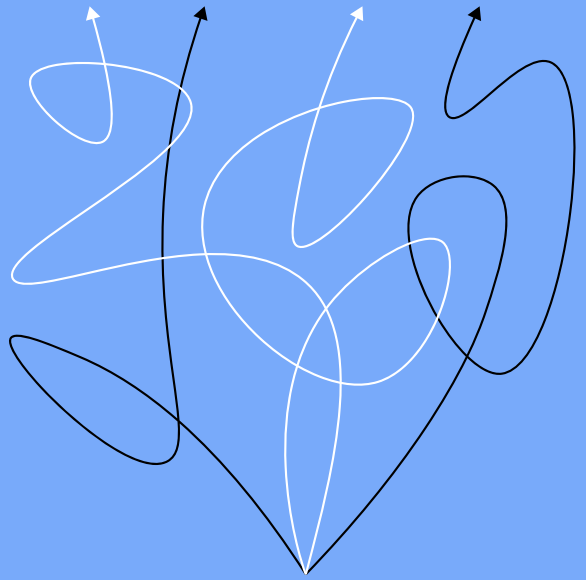
생물에 있어 다양성은 각기 다른 종(species)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에 있어서 다양성은 언어, 전통, 도덕, 종교 등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가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서로 다른 어떤 것이 복잡하게 섞이며, 새로운 것이 되거나 어떤 변화에 있어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활동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을 국가, 인종, 종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작게는 소규모 마을 집단부터 크게는 대륙 단위로 보는 경향도 있다.

UNEP GEO-4 에서 생물다양성 개념에 생태계, 생물 종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인간문화다양성(human cultural diversity)을 포함할 것을 정의하였고, UNESCO는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요 행동강령(Main Line of Action on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을 논의하였다. 또한 IUCN의 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 (Commission on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CEESP)는 세계가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얽혀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또한 서로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고민해야하는 중요한 삶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안 다양성 이야기



박에스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동네..' 한국 사회에는 크고 작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동질감'을 찾고, 외부의 낯설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곤 했습니다. 과거 농촌에서 농사일을 할 때 협력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만들었던 '두레'는 모내기, 김매기 등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구호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각자가 수십 개의 카톡방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결국 한국은 크고 작은 공동체 친화적인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의 저자 인요한(정치인, 연세대 교수)은 전주에서 태어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았고, 한국형 구급차를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5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시기 군산의 3.1 운동을 함께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해 일제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맞

나요? '한국인은요?' 어떤 학생들은 피부색과 인종의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이지만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나고 자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가요? 전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 이해응씨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2001년 한국에 여성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국한 후 2013년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서울시 인권 헌장, 외국인 주민센터 건립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주 이씨였던 어머니는 이해응씨에게 우리는 증조부 때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말씀하셨답니다.

19세기 후반 한국계 중국인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함경도 평안도를 떠나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일제의 서슬 퍼런 눈길을 피해 자유로이 독립운동하기 위해 많은 독립운동가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1920년대 일본은 만주국을 만들겠다며, 경상도 지역의 농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분들은 원래 한반도에서 거주하던 분들이니까 한국인이 맞나요? 아니면 외국인인 걸까요?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면 한국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국의 성씨 중 다른 나라에 기원을 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 중국을 동경하여 문중이 족보를 편찬할 때 자기 집안 시조의 연원을 중국과 결부시키려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1270년 제국대장공주를 모시고 고려에 온 인후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몽골계 연안 인씨, 조선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이름이 높았던 설순은 대표적인 위구르계 경주 설씨, 조선 효종의 왕비를 배출한 아랍계 덕수장씨, 베트남의 왕자로 정치적 망명으로 한국에 와 귀화한 화산 이씨,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장수로 조선에 들어와 조선의 문화와 인심에 감복하고 귀화한 김충선을 시조로 하는 사성 김해김씨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배경으로 한 성씨를 가진 이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사회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달합니다. 그중 한국인이 되기로 선택해 귀화한 외국인 주민은 22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는 17만 명,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8만 명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한국 국적 취득자(귀화), 외국인 주

민의 자녀, 기타(난민 등)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도 전국 97개, 그 중 서울에는 17개 지역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주 배경 인구가 5% 이상이면 다문화사회라고 하며, 이미 지방 곳곳은 이주민 인구가 5% 넘어가는 곳도 많아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생과 인구 소멸, 지방 위기, 대입 정원 문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의 대책으로 다각도로 외국인 주민을 본격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외국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교육부는 작년 「초·중등교육법」내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최초로 명문화하고 올해 4월부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정책이 국가와 지자체 단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의 학교 현장에는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법적 근거를 따져서 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행정적인 부처와는 다르게,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무국적 학생, 난민, 미등록 학생 그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 왔고, 국가의 행정부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이주 배경 학생들이 존재하는 곳 또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다문화 학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서울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1명 이상 존재하며, 서울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 ('20~'22 기간 동안 34,706명 감소)지만 다문화 학생은 전체의 2.41%로 증가추세 ('20~'22 기간 동안 1,212명 증가)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학교에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우르두어), 방글라데시어(벵골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네팔어 등 다양한 언어권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피해 한국에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

존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교육이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이를 존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지역, 가족의 형태, 종교, 장애, 질병, 외모, 신체 사이즈, 소득, 경제력, 학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정상'으로 여겨지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생기는 차별과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가정, 학교, 미디어를 통해 기존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일상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교육 현장이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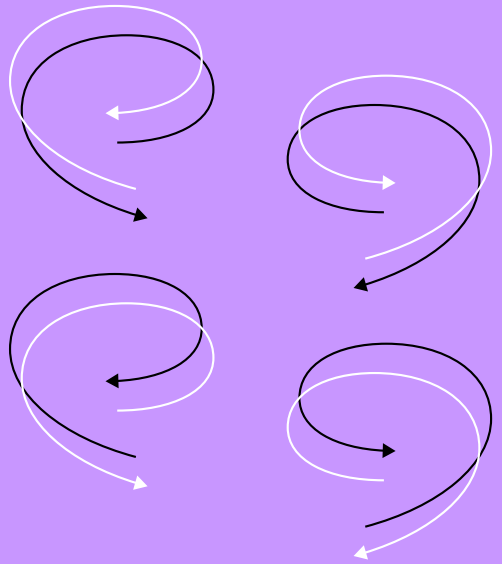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 안에 존재하고, 학교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받기 때문일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높은 수용성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낯설고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우리 사회의 역사를 함께 살아가고 시민 정신을 함께 만들어간 외국인, 한국에 살다가 해외로 이주한 조상들의 후예, 문화

예술, 스포츠, 사회복지, 건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빛내주는 수많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센터에서 주최했던 문화다양성 연수 중 대림동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대림동 탐방에 대해 주변에서 걱정되니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았다고 역시 직접 부딪히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역량으로 꼭 필요한 것이 '공감'능력이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편견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용과 공존은 연습 되고,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사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성별, 경제적 수준, 고향, 신체적 차이, 연령, 인종, 국적 무엇이든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위해 이미지 너머의 '본질'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낯섦을 환영하는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될 때, 다양성이 피어나는 공존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2023년에 개발한 다문화이해교육 교수학습자료 교사용 가이드에 나와있는 해설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다름아름> 참여자 인터뷰



작가 **이봉욱, 흑표범**
도슨트 **김가연, Cristina FernandezLee**
디자이너 **팜쭉린 Pham Truc Linh**

안녕하세요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용하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춤도 추는, 지금은 또 애 아빠라서 아빠 역할도 하는 이봉욱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름>전에서 보여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각 2개 면을 가진 3점의 작업을 5면으로 교차설치 하여 전시했어요. 한 작품은 외할머니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서 선인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게 되었고, 식물과 가족들의 조화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리다 보니 원래 이미지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변화가 흥미로웠어요. 저는 작업할 때 춤추듯이 자유롭게 물감을 발라 느낌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작업할 때는 공연처럼 액션이 중요해요. 무대에서 존재감이 가장 중요하듯이, 물감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의 존재감에 집중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감각에 집중해서, 물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 스케치를 바탕으로 느낌을 살리는데, 기존 이미지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해요. 작품에 인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인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인물이 가진 에너지

를 중시해요. 제 감각에 반응하며 인물을 그리다 보니 결국 제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디지털 프린팅으로 밑그림을 깔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처음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작업할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그리기 때문에 감상하실 때 작품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물감이 어떻게 발라졌는지, 붓 터치의 느낌을 살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주제가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사는 느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나라,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본연의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고향에 있던 친척들, 사람들을 스케치로 갖고 온 것을 그릴 때는 그걸 의식 안 하지만 아주 밑바탕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깔린다고 봐요. 저는 그런 주제가 굳이 제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이방인의 느낌, 외국인으로서 여기 살면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지 굳이 제가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정해놓지 않아도 이미 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을 때, 내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반응했을 때가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지 이걸 의식화하는 건 저는 포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게 또 하나의 어떤 하나의 작품의 가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는 쪽인 거죠. 적어

도 작품 만들 때는 의식적인 걸 저는 최대한 빼려고 해요. 자꾸 의식적인 게 들어가면 반복이 되니까 좀 더 감각적으로 풀어냈을 때는 훨씬 좀 자유롭고 사람을 좀 사람답게라고 해야 하나.

이번 전시 주제 '다양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 자체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을 추구하는 방향이 난 이렇게 다르게 해야겠다 의식한다기보다는 자기한테 집중하다 보면 다양해지는. 그런데 자꾸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다 그걸로 끌고 가니까 다양성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 교육도 어떤 수능이라는 어떤 대학이라던지를 정해놓고 다들 거기에 갖다놓고 그렇게 하니까 다양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지 사실 원초적인 옛날 유인원처럼 살면 각각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봐요. 지금은 다 모여서 사니까. 그 모여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맞추기 힘드니까 그 다양성을 차단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하나요?

다양성을 어떻게 본다라기보다는 나부터가 이미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다양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특정 방식으로 가

두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불편해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예술 분야에서는 다양성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짱개' 같은 말이 오가고,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윤동주 시인의 예를 들자면, 그가 태어난 만주 지역에 따라 다른 정체성으로 불리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작품을 보게 될 어린이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말도 조심스러워요.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사실 그림 보는 게 어린이들이 더 잘 본다고 봐요. 더 선입견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그걸 차단해서 방해가 되는 거지 그 부모님 혹은 뭐 어른들 신경 쓰지 말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애들도 그림 보는 거 이념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냥 적어도 제 그림 볼 때는 애들한테 춤추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그린거야라고 얘기했으면 해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그게 뭐예요" (웃음) "그림은 막 그리는 거야. 네 멋대로 막 그리고 볼 때도 네 멋대로 막 봐"라고 하는 게 최대한 가까이에서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 특히 제 그림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멀리서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림을 만져보아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뮤지움 관객 여러분 저는 작가 흑표범이라고 합니다. 소수자, 주변적인 어떤 존재들 그런 것들을 제 자신의 삶이랑 잘 연결해서 상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름아름>전에서 보여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행공포' 라는 제목은 영미 소설에서 가져왔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 이사도라는 여성 작가는 비행기 이륙 시 추락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결핍을 남자들 사이에서 채우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 결핍을 채우는 건 외부의 애착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글쓰기 능력과 내면의 힘으로 홀로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에서 느낀 자신과 타인의 취약성을 작품에 담고 싶었고, '비행'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 의미로 풀어내고 싶었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 사회적 프레임을 이탈하는 비행, 그리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서의 비행.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제가 협업했던 홍이현숙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설정했어요. 선생님은 36년 동안 비인간 동물의 몸을 탐구하며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업해 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인간 동물과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 했어요. 강정마을의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자연과 소수자의 연대를 느꼈고, 그 맥락에서 새와 가오리 동물의 만남을 설정했어요. 이 작업은 자연과 소수자 주체를 새롭게 연결하는 시도였습니다.

작품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길 바라나요?

관객들이 제 작업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고, 각자 삶 속에서 경험한 비행의 기억들, 연약함과 취약함을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대 때 가출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서울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불안감과 숨고 싶었던 감정들이 이 작업에 반영됐어요. 비행공포는 집 없는 존재들, 특히 홈리스 여성들을 염두에 둔 작업이에요. 큰 옷으로 여성성을 숨기거나,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 숨어야만 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작업했어요. 관객들도 자신의 비행과 방황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다양성이 각자 안에 있는 비인간성, 소수자성 같은 것과 와닿는 걸까요?

네. 다양성 혹은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 어떤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다양성 타자성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나의 어떤 부분 내가 혐오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거나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고치고 싶어 하고 이런 나 자신의 바깥, 그것과 좀 친해져 보는 거 그걸 조금 받아들여 보고 그래도 좀 괜찮다고 좀 이렇게 수용해 주고 그게 먼저 연습이 되면 그때 타자의 어떤 다른 면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작품을 보게 될 어린이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잘하고 싶기도 한데 이 영상에는 두 여성이 나오고 또 이 두 여성이 상상하는 또 다른 동물들이 나와요. 이 몸짓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넓은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존재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크게 먹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에 나오는 새와 가오리가 서울의 다양한 곳곳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은 꼭 정해진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가연 도슨트 인터뷰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2살 김가연입니다.
송아지선생님라고불러주
세요. 저는도슨트김가연
입니다. 송아지라고불러주
세요.

헬로우뮤지움에서 <다름아름> 도슨트를 하면서 어땠나요?

[illegible]

헬로우뮤지움에서 일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웠나요?

[illegible]

헬로우뮤지움에서 앞으로 하고싶은 일이 있나요?

[illegible]

| Cristina FernandezLee 도슨트 인터뷰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My name is Cristina, and I am a second-year university student working over the summer at Hello Museum. I am part Korean, part Spanish, and currently attend a university in Spain. I use my studies, Human Behavior, alongside my love for museums and children each day here at the museum.

어떻게 헬로우뮤지움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I got to know about Hello Museum through a close family member, and saw myself as a good fit for a children's museum.

헬로우뮤지움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t Hello Museum, I hosted English book reading classes, which consisted of a craft activity, alongside the book. With that, I also worked at the front desk and helped keep the museum running. Translation being one of the many.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working here at Hello Museum was managing the language levels for each student. Not every student can speak fluently. In a classroom with such diverse levels, I would need to speak both Korean and English to prevent the kids from tuning out. In a way, diversity like this can also be seen in a classroom.

활동을 할 때 진행한 <다름아름> 전시의 주제인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I appreciated how diversity spanned not only diversity in people, but also within food or animals, spanning a wide array of the terminology. I thought it was amazing that such a complex topic could be explained to children at an early age to advance their world view– something that wasn't talked about even a few years ago.

사람들(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The way I see Koreans interpret "diversity" is to establish it as a

baseline of “normal” versus “not normal.” Anything beyond the norm is considered “diverse.” In reality, a baseline can differ from place to place. Foreigners are looked at as ‘diverse,’ but a Korean is not, simply because of the fact that a Korean would be considered the default. As a half-Korean, half-Spanish dual citizen, I often feel alienated and othered living here. Almost as the “token diversity.” I hope that as Korea becomes more globalized, this view will shift, and the definition of the norm will widen.

헬로우뮤지움에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한마디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It was great to work at such a dedicated and close team. I feel as though I have gained valuable experience working at the front desk directly with parents, at the crafts room reading to kids, and helping out with events hosted here as well.

| 팜쭉린 Pham Truc Linh 디자이너 인터뷰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6년을 보낸 베트남 유학생 팜쭉린이라고 합니다. 경기대 시각정보디자인 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브랜딩과 편집 디자인 쪽에 활동 중입니다.

전시의 주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 전시의 주제를 접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개체로 존재하지만 함께 공존하면서 각자의 삶이 더 다채로워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정성적인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특히 한국 사람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점은 마음과 마인드가 통하면 언어와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며, 만들어진 결과물도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이지, '내 출신'이 아닙니다. 외국인을 견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다름아름> 전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으로도 의미를 지니지만,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융합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의 작업에도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 디자인을 하면서 고민 혹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언어적인 어려움보다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더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이 한국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름아름> 전시 디자인을 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자료 위주로 구성되는 도록의 경우, 색상과 일러스트를 추가하여 진지한 주제에 더 편하게 접근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했습니다. 전시를 감상한 후 도록을 읽으면 작품의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Atlantic
Pacific
New York
Atlantic-
Pacific co.

박물관·미술관 주간
HELLO MUSEUM

주간

<다름아름>

본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ww.museumweek.kr

참여작가 구민자, 김유정, 이봉욱, 정연두, 조영주, 하루.K, 흑표범(ft. 홍이현숙)

기획 및 총괄 김이삭 **초기 기획** 장민현, 이영화

큐레이터 고윤정, 안범철, 예지연

진행 헬로우뮤지움 학예실 : 김윤지, 남승윤, 예지연, 위서연, 이예슬, 이상미, 이하린, 조수빈

협력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성동구 가족센터, 세계시민포럼
전시 -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 안범철, 이수민
세미나 - 김기학, 노준성, 박에스더, 소윤미, 안범철, 안연주, 이영지
워크숍 - 김유정,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조우리, 흑표범

디자인 팜쭉린 Pham Truc Linh **도록 편집** 예지연

사진 안철홍

전시구성 디자인 잘함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Korea Rep.

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HELLO MUSEUM

©2024. HELLO MUSEUM. All rights reserved. <다름아름>의 모든 저작권은 헬로우뮤지움에 있습니다.